

# 도-여야 정치권 “협치 행보 계속”

김관영 도지사, 전북지역 국회의원들과 조찬 간담회

김 지사 “하이퍼트루트 유치 법률안 발의 등에 감사”

제21대 여·야 전북 국회의원들이 김관영 도지사와 조찬 간담회를 가지고 전북의 현안 해결에 관한 토의를 가졌다

24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 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 전북 국회의원 6명이 조찬간담회를 갖고 전북의 각종 현안 추진 상황 등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는 김관영 도지사가 민선 8기 도백 취임 이후 지역 국회의원들과 매달 정기적인 만남과 소통을 통해 전북의 지속 성장 발전을 추진하자고 제안하며 지난 7월 27일 가진 조찬 모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샌드위치와 함께 당·정의 지역 현안 해결과 관련 추진 전략 등 심도 높은 토론으로 진행됐다

김관영 도지사는 “최근 새남당 하이퍼트루트 종합시험센터와 익산 국립 호남권청소년상담센터 유치 등은 의원님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북국회의원과 전북도 조찬 간담회에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을 지역구로 한 국회의원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들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뤄낼 수 없는 성과라며 감사 인사를 먼저 전했다

한병도 민주당 도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역 많은 현안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와 공공의대 관련 현안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 위원장은 “김관영 지사님 취임 이후 여야 협치시대를 열었다며 “더욱 많은 진짜 성과물이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당장 시급한 국가예산 확보는 물론 전북 관련 법률안, 국가 공모사업 등에 대응 전략과 의견들을 교환했으며 다음 정례간담회는 9월 20일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가예산 확보와 관련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재부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 중이다”며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과 건전재정 기조 등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 도·시·군의 민트없는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 “전북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 정치권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앞으로도 정치권과 도정의 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1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응천·전준호 의원,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을 각각 만나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의 조속한 안건 상정과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김경수 기자

# 민주, 당헌 80조 개정안 재상정

중앙위서 부결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은 제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중앙위원회에 상정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이 부결됨에 따라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내용을 제외한 개정안을 재상정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중앙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결과 발표 이후 모여 회의를 진행했다. 이어 이같은 추후 계획을 공개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논란이 된 만큼 이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당헌 개정안을 당무위, 중앙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비대위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신 대변인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으로 기존안을 다시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다. 당무위는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 관련 투표 결과 재직위원 566명, 중 430명이 투표에 참여해 75.97%의 투표율을 보였다. 참여자 중

찬성 288명, 반대 162명, 미참여 136명 이었는데, 재적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신 대변인은 “찬성이 288명으로 반대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결과였다. 다만 투표에 참여 못한 분들의 비율이 상당 부분 있었다. 그래서 10여표가 부족해 과반이 안 된 것으로 비대위는 해석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이틀 동안 당헌 개정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이 논의 과정에서 우리가 결과를 분석해 보면 결국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에 대한 부분이 공방이 있던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의 이의 제기과 숙고에 대한 부분에 이견이 있었다.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의 이같은 결정에 재상정되는 당헌 개정안에는 당헌 80조에서 정치탄압에 대한 판단 권한을 당무위원회가 갖도록 하는 절충안만 포함될 예정이다 /뉴시스

# ‘전북대 국제컨벤션센터 건립 공로’

박용근 도의원, 전북대 총장 감사패 받아

전북도의회 박용근 의원(더불어민주당, 장수)이 23일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을 살려 2018년부터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와 교육부, 기획재정부 간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이끌어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 건립이라는 결실을 거두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는 217억 4300만원을 들여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하2층, 지상1층 연면적 6008㎡, 주차 51대 규모로, 대형 컨벤션 홀 1관, 세미나실 11관, 회의실 1실, 커피숍과 식당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박 의원은 “예산처장보좌관 경험 /김경수 기자

# “민선8기 첫 조직개편, 청년정책 의지 부족 우려”

김슬지 도의원 “청년정책 전담 부서 팀 단위로 축소·조정 전주시 청년정책과 신설 등 행정조직 강화 추세에 역행” 비판

민선8기 전북도 조직개편에 청년정책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실제로 전북은 청년정책 행정기구 전담에서 울산, 강원, 전남 등과 함께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일 입법 예고된 전북도 조직개편과 관련해 청년정책을 전담하는 부서가 팀 단위로 축소·조정됐다면 이같은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은 “지난해 전북도는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대도약기화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 및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했다”라며 “이제 1년 조금 넘게 청년정책 전담부서가 운영되었을 뿐인데, 팀 단위로 조정되는 것은 민선

8기 청년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으로 읽힐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전북도의 청년정책 전담 부서 축소가 자칫 청년정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면서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또한 “전주시가 최근 발표한 조직개편만 보더라도 청년정책 강화를 위해 청년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각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강화하는 추세와 역행한다”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청년정책 행정기구 인력을 보강한 곳은 서울(45→47), 부산(29→30), 인천(13→14), 광주(12→16), 충남(12→17), 경북(18→20), 제주(16→18) 등이며 전북(7명)을 비롯해 울산(4명), 강원(8명),



전남(5명) 등은 전담인력이 10명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슬지 의원은 “정부가 청년정책과 관련해 국정을 총괄하고 각 부처를 통합하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조정실을 두고 있는 이유는 청년의 문제가 단순히 일자리 부족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면서 “일자리 위주의 청년정책을 탈피하고 주거, 복지, 교육,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살피는 정책 마련을 위해 청년정책 전담부서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거 당시 김관영 지사는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 찾아오는 전북, 희망을 갖는 전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라면서, “김 지사가 지

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대기업 유치 등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지금 전북에 살고 있는 청년의 삶이 어떠한지 좀 더 세밀하게 살펴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은 이어 “지방소멸 위기의 핵심은 전북을 떠나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민선 8기 전북도가 청년정책을 보다 확장·강화하고 청년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부서 개편 등이 조직개편에 반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슬지 의원은 청년정책 행정기구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며, 향후 청년정책 행정기구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은 물론이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채널을 보다 다양화하고 청년의 시각과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북 청년의 대변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경수 기자

# 부정채용 의혹 이상직 “청탁 아닌 지역할당제로 뽑았다”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이 다시 불거진 가운데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24일 오후 전주자택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수백억원대 배임·횡령 사건에 대한 한소심 속행 공판을 마친 뒤 만난 취재진에게 “저는 관여한 바 없다. 청탁은 무슨 청탁이냐”라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그는 “지역 할당제를 통해 지원한 인재들만 수천명에 달하고, 지원자들

끼리 경쟁해 채용된 것”이라며 “30%가 나머지 70%보다 영어 실력 등 (자격) 요건이 떨어질 수 있지만 (회사는) 오히려 나후턴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인재를 채용하는 데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 등은 2014~2015년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당시 지역 인사들의 청탁을 받고 채용 기준에 못 미치는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뉴시스

# 유네스코세계유산도시 고창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 (2021년 7월31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고창고인돌 (2000년12월)



유네스코 고창생물권 보전지역 (2013년 5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판소리 (200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고창농악 (2014년)